

민주당 전당대회

■ 이모저모



3일 오후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열린 민주당 2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참석한 당원들이 풍선막대를 흔들며 당권 주자들의 연설에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후보 연설때 계란 투척 눈살

부동표 잡기 '현수막 경쟁'

○전당대회 후보들은 자신들의 강점을 부각하는 현수막을 대회장 입구에 내걸고 부동표 잡기 경쟁을 벌였다. 빅3는 각각 '민주당이니까(정세균)', '크게 보면 다름니다(손학규)', '강력한 진통민주당(정동영)' 등의 구호로 '당심 잡기'를 시도했다. 또 박주선 후보는 "새 인물 강한 민주당" 이란 구호로 빅3 견제를 시도했으며 천정배 의원은 "화끈하게 싸우겠습니다"며 선명성을 강조했다.

광주시 김치축제 홍보 코너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가 당선된 광주광역시와 충남·북 등은 행사장 밖에 부스를 세우고 지자체 축제를 홍보했다. 특히 광주시는 김치축제를 홍보하는 시식 코너를 만들어 참석 대의원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은태 광주시장은 이날 대회장 안 광주지역 대의원들이 있는 자리를 찾아 대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지방선거 때의 지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청와대에서는 정진석 정무수석, 정부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행사장에 축하 화환을 보냈다.

"국민보고 정치해야 성공"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날 전당대회 축사에서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민주주의와 민생경제, 남북관계를 지켜온 정통 야당으로 무엇보다 10년의 성공한 집권 경험을 가진 성숙한 야당"이라며 "하늘이 새롭게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개천길에 민주당은 국민의 영원대로 민주당을 이끌어야할 새로운 용을 탄생시키기 때문에 민주당의 집권은 확실하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탄생하는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개인이 아닌 당원을 두고, 계파가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후보들 대형 트럭 타고 입장

○전당대회 열기는 대형 트럭을 타고 입

장한 후보들이 정견 발표를 위해 무대에 서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전체 후보 중 3번째, 빅3중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정세균 후보는 "이명박 정권은 무능·부도덕·오만하다. 입으로는 '친서민' 하면서 일자리·교육·복지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 해결책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밖에 없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동영 후보는 "지난 10년간 저만큼 뜨거운 사랑을 받은 사람도, 과오와 잘못도 비관과 질책을 받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이제 단련된 힘으로 어머니 민주당을 구해내고 싶다"고 다짐했다.

손학규 후보는 "국민이 좋아하고 관심 갖는 인물을 당 간판으로 내세워야 한다. 개혁과 진보, 중도까지 끌어올 수 있는 사람을 내세워야 한다"며 "손학규는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는 몸통이 되겠다. 이명박 정권과 맞서 싸워, 민주당을 지지할 1위의 사랑받는 수권정당으로 바뀌어 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대 열기가 과열되면서 정세균 후보가 연설하는 중 상대 후보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대 근처로 와 계란 2~3개를 던져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박지정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아들·딸 중에 대통령 나와야" 姜 시장 축하 메시지 헤프닝

강은태 광주시장은 3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손학규 대표와 최고위원들에게 "2012년 정권을 재창출하는데 앞서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소속인 강 시장은 이날 발표한 축하메시지에서 "손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계승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보여주는 민주당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일등국가, 등불국가가

되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시장은 이날 축하메시지에서 "민주당의 어머니인 광주는 수년 동안 오직 민주당이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광주의 아들 딸'에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밝히 그 의미를 높이고 미묘한 과장이 있었다. 이날 선출된 손 대표와 정 최고위원 등이 광주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 '강 시장이 따

로 염두에 두고 있는 대권주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축하메시지는 보좌진이 쓴 것으로, 직접 손을 본 것이 아니어서 일부 오해가 있었다"며 "광주의 아들딸이라는 표현은 당연히 '민주당의 아들 딸'로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신임 최고위원 프로필

정동영

MBC 간판 앵커였던 96년 총선에서 전주에 출마, 전국 최다득표를 기록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 후반 당내 정풍운동을 주도하면서 차세대 리더로 부상했다. 열린우리당 의장과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원 속에서 '참여정부 황태자'로 불리며 승

DJ정부 정풍운동 차세대 리더 부상

장구했었지만, 2006년 5·31 지방선거 참패 후 구 민주당과 통합 등 여러 진로를 둘러싼 이견으로 노 전 대통령과 갈라섰다. 2008년 총선에서 낙선한 뒤 미국으로 떠났다가 지난해 4월 전주 덕진 재보선에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

선택됐다. ▲전북 순창(57) ▲서울대 국사학과 ▲민주당 최고위원 ▲열린우리당 의장 ▲통일부 장관 ▲대통령실민주신당 대선 후보 ▲15,16,18대 국회의원



정세균

전형적인 위유내강형의 4선 의원. 실물경제에서 익힌 경험과 균형감각은 정치권의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거쳐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선출된 뒤 개혁입법을 무난하게 처리해내면서 리더형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원내 대표직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장 맡아

서 물러난 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2007년 2월 열린우리당 의장에 합의를 추대돼 민주진영 통합과 대선 경선을 관리했다. 당 대표로 재임한 2년간 정동영 재보선 공천 배제와 미디어법 저지 투쟁을 거치면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랐다.

▲전북 장수(60) ▲고려대 법대 ▲15~18대 의원 ▲새천년민주당·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당의장 ▲산업자원부 장관



이인영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대표적인 80년대 운동권 출신 정치인. 87년 6월 항쟁 때 전대협 초대 의장으로 활약했다. 대학 졸업 후 재야에서 몸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젊은파' 수혈 차원에서 영업계 정치권에 입문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탄핵

운동권 출신으로 486 단일후보

역풍 속에서 서울 구로에서 당선됐으나 18대 총선에서는 고배를 들었다. 낙선 후 주요 당직을 맡은 운동권 출신들과 달리 외곽에 머물다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입선에 복귀, 486 단일후보 자격으로 당원에 도전했다. 재야 민주화운동의 대부

인 김근태(GT)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충북 충주(46) ▲충주교, 고려대 국문과 ▲전대협 초대 의장 ▲민주당 청년위원장



천정배

인권변호사 출신의 4선 의원.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현역의원으로 유력하게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고,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17대 총선 후 이해찬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에 당선된 뒤 개혁입법을 추진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등 이른바 4대 개혁법

원내대표 때 개혁 입법 추진

안 처리에 실패하자 사퇴한 뒤 법무장관을 지냈다. 법무장관 시절 통국대 강경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헌정 초유의 불구속 수사지휘권을 발동, 김종민 검찰총장의 사퇴 파동을 일으켰다. 서울대 인문계열에 수석 합격, '목포

가 낳은 3대 수재'로 불린다. ▲전남 신안(56) ▲목포교·서울대 법대 ▲민변 창립회원 ▲15~18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법무부 장관



박주선

구 민주계를 대표하는 검사 출신의 재선 의원. 1974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뒤 서울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99년 웃로비 사건 때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서 사직통첩 내사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구속되는 등 '3번 구속'에 3번 무죄

친화력 두터운 구 민주계 대표

관결'을 받는 등 정치인으로서 부침을 겪었다. 2000년 총선에서 고향인 보성에서 옥중 당선됐고 2008년 총선에서는 광주에 출마해 전국 최고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한 뒤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 50만명

이라고 말할 정도로 친화력과 인맥이 두터운 편이다. ▲전남 보성(61) ▲서울대 ▲대검 수사기획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16,18대 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조배숙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검사 출신의 3선 의원. 1980년 사법시험 합격 후 검사로 재직중 1986년 판사로 전관, 서울고법 판사를 지냈고 여관사에게 영장 당직을 맡기지 않던 관행을 깨뜨리는 등 법조계 차별 해소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변호사 개업 후 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최초 여성검사 출신 3선 의원

역임했고 다양한 경력을 쌓은 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뒤 전북 익산에서 내리 당선됐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과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을 지냈고 성매매방지법 발의 등 성평권 방지와 여성인권 보장을 위해 노

력했다. ▲전북 익산(54) ▲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22회 ▲서울지검 검사 ▲서울고법 판사 ▲여성변호사회 제3대 회장 ▲16~18대 국회의원



부실채권 (못받은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각종못받은돈

선수금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수수료(회수 금액의 30%이내),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

새한신용정보(주)
062)228-0990, 010-8494-9484

www.ctcl.co.kr

까띠끌레 피부개선 기능성화장품

지역대리점 및 사원모집

- 소자본투자
- 안정된 수익률
- 미용관련종사자 우대

열정 가득한 분을 모십니다!!

지역대리점은 (목포, 여수, 순천, 익산, 전주, 남원 등입니다.)

까띠끌레는!

- * 전국 1,800여개 피부과에 입점중인 병원 전문 화장품 브랜드
- * 한국화화시험연구원 중금속 시험을 통과한 화장품 브랜드
- * 국내 최초 더마프로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화장품브랜드
- * 2010년 프레타포르테부산 공식 지정 화장품으로 선정된 명품브랜드 화장품
- * 태국 Watsons 매장 입점중인 화장품 브랜드
- * 세계 다수 국가로 수출중인 화장품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베트남,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두바이 등 다수)
- * 국내 유명 헤어샵에 입점중인 화장품

방문판매 및 라키시행 모집 : 자유로운 출퇴근, 안정된 고수익률, 투잡가능

Caticlair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1-1 201호
까띠끌레 호남지사 ☎ 062)362-1117 / 010-3608-6394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 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 시간	성 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